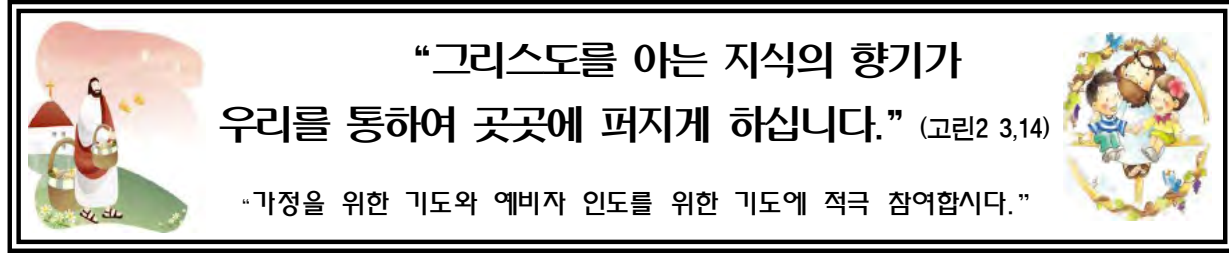


공동체 소식



9월 기도지향

주영길(토마스) 신부님

순교자 성월

한국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신자들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순교란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순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은 평소 하느님을 체험하며 살았기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

9월 2일(주일) 교중미사를 시작으로 저희 공동체는 제 5대 주영길(토마스) 신부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동체와 신부님의 만남을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신부님께서 미국생활에 잘 적응하시도록 공동체가 성심껏 보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임이신 박진성(프란치스코) 신부님은 한국에 잘 도착하시고, 엄정본당에서 부임식(9/6)을 잘 마치셨다고 공동체에 소식 전하셨습니다.

이번주일에 "평협회의" 가 있습니다.

오늘 평협회의가 있습니다. 새신부님과 첫번째 평협회의입니다. 평협 분과장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9월 9일(주일) 점심식사 후

오마하 한인성당과 친교의 날

오마하 한인성당과의 친교의 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공동체가 오마하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대형버스를 준비했습니다. 선착순으로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마하 공동체가 정성스럽게 방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시오. - 친교의 날 : 9월 16일(주일) - 신 청 : 문석찬 요셉(행사분과장) 및 행사분과원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입문을 원하시는 분이나,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님들께서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일시 : 매 주일 아침 10시 - 교리장소 : 성당지하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 8시)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추석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조상님, 부모, 가족, 친척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감사와 위령미사를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봉헌은 미리 준비된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9월 30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전례 성가

Table with 4 columns: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Values: 28, 210, 166, 173, 286

주일미사 복사

Table with 3 columns: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다음주일. Values: 차호섭(요 셉), 안동현(프란치스코), 차서은(세라피나), 안지영(가타리나), 안광민(제 임 스), 정준구(파비아노), 안광희(크리스토퍼), 정병훈(보니파시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Table with 3 columns: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이번주일, 다음주일. Values: 박혜정(가타리나), 류기범(요 셉), 김명은(안 젤라), 신혜경(마 리 아), 김주연(세실리아), 홍순익(마르티노), 박혜정(카타리나), 최은미(아 네 스)

애찬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이번주일, 다음주일. Values: 김시연 엘리사벳, 안혜진(임마폴라마), 한정숙(마리아), 문문주(엘리사벳), 최은미(아네스), 배복선(한나)

헌금 봉사자

Table with 3 columns: 이번주일, 다음주일. Values: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한(베 드 로),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서 감사합니다!!!

- <9월 2일> - 미사참례 : 107명 - 주일헌금 : \$497 - 교 무 금 : \$990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3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받는 이웃에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로 다짐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



성화해설

양근 수원교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소재.

양근은 신유박해 이전 한국 천주교 창립 주역인 권철신과 권일신이 태어난 곳이다. 이승훈은 1784년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 서울 수표교 근처 이벽의 집에서 이벽과 권일신에게 세례를 베풀고, 후에 양근으로 내려와 권철신과 훗날 충청도와 전라도의 사도가 된 이준창과 유항검에게 세례를 주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또한 양근은 조숙과 권천례 동정부부가 태어나고 순교한 곳이며, 많은 신앙인들이 인근 백사장에서 참수형을 받고 순교한 곳이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학교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이사 35,4-7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내 영혼 아 주님을 찬양하라 알렐루야 - -

- 주님께서 언제나 신의를 지키시고 억울한 사람들을 정의로 판단하시며 굵주린 이에게는 빵을 주시도다. 주님께서는 사로잡힌 이를 풀어 주시도다. ◎
- 주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열어 주시며 주님께서는 억눌린 이 일으켜 주시며 주님께서는 의로운 이를 사랑하시도다. 주님께서는 나그네를 지켜 주시도다. ◎
- 주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길러 주시나 약한 자의 길만은 어지럽게 하시도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시니 시온아 네 하느님 세세에 계시도다. ◎

제 2 독서 : 야고 2,1-5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 음 : 마르 7,31-37 <예수님께서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신다.>

말씀의 이삭

“진정으로 듣고 말하게 하시는 분”



오늘 복음이 그 시대 치유하는 사람들과 같은 동작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장애인을 고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 말미에 이사야 예언서(35,5)를 인용하여 사람들이 한 말을 전합니다. **‘저 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머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예언서가 예고한 구원적인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초기 신앙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해 믿던 바를 예언서의 언어를 빌려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삶의 운동입니다. 신앙은 하느님에 대한 신비스런 이론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힘을 빌려 기적을 행하겠다는 야망도 아닙니다. 죽음 후의 내세를 위한 안전(安全)대책도 아닙니다.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안에 하느님을 살아계시게 합니다.** 신앙은 율법을 지키고, 제물을 바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에 대해 깊이 깨닫고, 그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예수님의 그런 실천을 배워 하느님이 우리의 삶 안에 살아 계시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 후,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 불렀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실천 안에 그들이 해방과 구원을 체험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분과의 접촉에서 그들은 참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과 실천에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에 대해 체험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은 체험한 바를 기록으로 남겼고, 그것이 후에 복음서들을 포함한 **신약성서**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무엇을 강요하거나 인간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하느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자유롭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자유를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인간은 텔레비전의 채널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가게에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마음대로 사듯이, 각자 자기 소신대로 선택하며 자기의 인생을 삽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은 초기 신앙인들이 예수님

에 대해 남긴 말들을 참조하여 자기 처지에 맞는 실천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앙인으로 삽니다.

오늘 예수님이 청각 장애인 한 사람을 고친 이야기 안에는 우리의 장애도 고치는 예수님에 대한 초기 신앙인들의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한 사람을 치유한 이야기이지만, 초기 신앙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체험한 바를 그 이야기 안에 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듣고 말하는 데에 장애를 지닐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이웃의 말을 그대로 알아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이 많아서, 혹은 자기의 신분 서열이 높아서,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도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도취는 이웃의 말이 들리지 않는 장애 현상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과시하는 말**만 즐겨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하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한(恨)이나 미움을 배설하는 데에 급급한 사람도 이웃의 말을 듣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웃에게 **해방과 기쁨이 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장애들을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극복하는 운동을 일으킨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느님은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고 배려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배워 실천하자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소중히 생각하면, 우리는 이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웃의 말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배려를 실천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은 그 실천으로 인류역사 안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함께 나누어요

가장 쉽게 망치는 방법

아름다운 화단을 망쳐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꽃밭에 불을 지르면 될 것이다.
물속에 잠기도록 물을 퍼부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고도
쉽게 망질 수 있는 길이 있다.
화단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잡초가 무성해지고 저절로 망쳐진다.

어떻게 하면 친구간의 우정을 망쳐 버릴 수 있을까?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를 마구 헐뜯고 다니면 될 것이다.
그 친구의 우정을 크게 배반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할 것 없다.
그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라.
저절로 망쳐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망칠 수 있을까?
교회에 돌을 던지고 건물을 부수어 버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다니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할 것 없다.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교회에 가지도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교회는 저절로 망쳐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
방탕하고 법을 어기고 타락해 버리고
건강을 마구 상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세상 돌아가는대로 나를 그냥 편하게 두면
나는 저절로 망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망쳐서 멸망에 떨어지게 할까?
하느님의 진리를 철저히 반대하고 나르면 될 것이다.
물질과 육욕만을 위해서 살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영혼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두고 살면 될 것이다.



교부들의 신앙

테르툴리아누스의 저서

테르툴리아누스의 저서는 31개가 있으며, 그의 저서들을 읽을 때에는 가톨릭 정신을 가지고 생활하였던 시기의 저술들을 선택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195년부터 212년까지 저술한 저서들은 아무 문제없이 유익하게 인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테르툴리아누스는 초기 그리스도교 라틴 문학의 시조로 평가받을 정도로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는 신학분야에 있어서 라틴어 용어들을 정착시킨 결정적인 공로자이며, 명실공히 첫 라틴저술가로 인정받는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가 희랍 교부신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한다면, 테르툴리아누스는 라틴교부신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저서들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호교론적 저서들, 논쟁적 저서들, 윤리와 영성적 저서들이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그의 [이교인들에게]와 [호교론]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교도들의 박해가 이성과 정의에 어긋나며, 무지의 소산임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호교론]은 그의 저서들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작품으로서, 지방 행정관에게 쓴 것이다. 그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진실한 삶의 선택이며, 오히려 신자들은 국가의 안녕과 통치자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아무리 잔혹한 박해로 신자들을 죽이더라도, 신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이다’(호교론 50,13)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유대인 논박]은 유대교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을 강조한 작품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신적 능력을 상실했으며, 대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열렸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법은 모세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법의 기원은 이미 인간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정법이며 자연법이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이 자연법을 요약하고 확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분으로서, 하느님의 법을 완성하고 세상 만민의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구세주이심을 강조하고 있다.